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의식의 지향성 규명한 새로운 철학

이영호

학적 태도에 있어 새로운 시각

본래 현상학 (Phanomenologie)이라는 말을 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인 람베르트(J.H. Lambert)라고 한다. 이 때의 현상학은 현상의 본질탐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본질학과 구별하여 본질의 현상을 탐구한다는 의미로 경험적 인식의 기초를 연구하는 인식론의 한 부분을 말하였다.

그후 칸트를 거쳐 헤겔의 저 유명한 「정신 현상학」(Phanomenologie des Geistes)이라는 주저가 출간되어 현상학이라는 용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이 때의 현상학은 변증법철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대변하는 말이 된다. 즉 '절대정신'이라는 大前提를 인정하고 이 정신이 나타나고 전개 내지는 발전하여가는 모습을 우주안의 생성 소멸의 변화로, 인간의 역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현상학은 이같은 정신의 나타남(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하여 이 헤겔의 주저는 정신의 가장 단순한 현상인 感覺知에서 출발하여 絕對知에 이르는 정신의 발전과정을, 즉 정신변증법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변증법철학이 끼친 영향이 매우 커서, 대개의 경우 일반독자들은 현상학이라 하면 이 「정신현상학」을 연상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분야의 학문적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상학은 위의 것과는 달리, 경험적 인식에서 제기되는 '감각현상'이나, 어떤 초감성적 영역의 '절대자'가 나타난다는 뜻에서의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어떤 思辯的인 독단이나 감각적 인식의 상대주의를 배격하며, 환경을 더 들어가 모든 이론적 가상을 거부할 것과 그리하여 어떤 전제에도 의거함이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질 것을 그것 자체로 탐구할 것을 요구하는 학적 탐구의 새로운 태도 내지 방법을 대변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로 현상학은 끝없는 '태도변경'과 '처음을 시작하는' 思考實驗을 요구한다. 물론 오늘날의 현상학을 이런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철학 내부에서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학문분야에서 많이 통용되는 측면을 통하여 현상학을 소개할 때에는 역시 이 새로운 시각의 개발이라는 측면이 그것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학적 태도에 있어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는 말이다.

후설에 의해 기초가 다져진

현상학은 사변적 독단이나 감각적

인식의 상대주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학적 탐구의

새로운 태도 내지 방법이다.

후설 이후 해석학적 현상학,

실존적 현상학, 지각현상학 등으로

심화되는 동시에 여타 학문에

새 방법론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 현상학을 창시한 사람이 독일계 유대인인 후설(Edmund Husserl, 1859 - 1938)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상학'이라는 표제아래 이해되고 있는 현대철학은 단순히 후설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설의 그것보다는 그의 영향아래서 발전된 여러 갈래의 철학적 흐름을 묶어서 현상학이라 하며, 그런 뜻에서 '현상학과' 또는 '현상학 운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하겠다. 그리하여 후설의 현상학과 더불어 '해석학적 현상학'(하이데거), '실존적 현상학'(장 폴 사르트르), 지각현상학(메를로 폰티) 등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한다. 또 이 현상학적 태도 내지는 방법을 응용하는 측면에서 '현상학적 사회학', '현상학적 미학', '문학현상학' 심지어는 '현상학적 음聲學'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다양한 이해태도가 가능한 것은 '현상학'이 갖는 특징에 속한다. 왜냐하면 현상학은 어떤 고정적인 하나의 체계를 주장하는 철학이거니와 오히려 '사물', '세계'를 또는 학적 관심의 서로 다른 영역을 보는 시각을 가르쳐준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다양한 이해의 서로 다른 속에 공통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밝힘으로써 찾아보도록 하자. 현상학은, 그것이 어떤 현상이든간에 '현상'의 탐구를 참된 철학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철학의 한 흐름이다. 따라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현상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관건이다.



'현상'은 쉽게 말해 '나타남'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항상 현상보다는 현상의 본질을 탐구함을 과제를 삼아왔다. 그리하여 그것은 본질철학의 모습을 가졌다. 본질철학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고 이 변화를 오히려 불리일키는 것, 그것을 실체(Substrat)라 부르든, 본질이라 부르든, 원인이라고 하든, 또는 초월적인 절대라든지, 神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추구의 기본적인 동기에는 이 변화무쌍한 현실을 초월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예호바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본질' 아닌 '현상'을 탐구하는 철학

이런 상황 아래 현상은 항상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기껏해야 경험과학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이 현상을 철학적 탐구의 주된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이것이 현상학이다. 왜 그랬을까? 그 첫째 이유는 종래의 철학 특히 전통적 형이상학은 그의 탐구방식이나 탐구과정에 있어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이론적 전제를 인정한다는 점이고, 이 점이 어쩔 수 없이 독단의 수령 속으로 철학을 이끌고 말았다. 현상학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독단적 지식을 철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는 구호가 현상학적 태도를 표현하는 모토로 등장한다. 이 이념에 따라 현상학의 탐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탐구, 즉 어떤 확실치 않은 이론을 매개로 해서 주어질 모든 것을 일단 괄호로 묶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는 것

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것'이 현상이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란 말은 '에게 나타났다'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에게' 나타난다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만 그 뜻이 명백하다. 철학사의 측면에서나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이해에 있어서 대체로 이 이중적인 구조는 우선은 밖에 있는 어떤 사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밖에 있는 사물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리하여 철학적 탐구의 출발은 감각적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한 입장이 성립한다.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성립된 '감각여건'(Sense-data)주의다. 넓은 의미의 경험주의 철학이 이 입장에 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입장을 실증주의 철학에서 발견한다. 실증주의(Positivism)는 따라서 모든 인식의 근거를 '감각자료'로 환원시키려는, 또는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의 주장이다. 그 결과 철학적 인식은 감성적 경험이 가능한 것만이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고 이를 넘어서 있는 것은 일체 탐구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단지 경험의 영역에는 있지 않지만 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수학이나 논리학의 명제에서 볼 수 있는 명제 자체의 무모순성에 의해 그 진리치가 보장되는 순수이론적인 형식이다. 요약하면 ① 자연과학의 명제들과 같이 그 眞僞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거나, ② 동어반복(Tautology)의 형식이 있어서와 같이 그 진위를 명제에 사용한 개념의 정의에 의거해서 분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명제들만이 의미가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아무리 그것이 판단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철학의 영역에서 추방하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특히 논리실증주의에 의해 대변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어 분석에 전념하여, 그 결과 종래의 철학적 탐구에 있어 애매성을 극복하였다는 공헌을 갖는다.

현상학은 주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독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잘못된 추상에서 연유하는 이론적 혼미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들과 길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들 실증주의적 철학이 '각각 현상'에 인식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철학적 탐구의 영역을 자연과학의 성립영역으로 축소시켰으며, 주관에 갖는 창조적 영역을 물리적 현상의 영역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객관성 또는 과학성이 갖는 의미를 되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현상학은 감각에 대하여 나타난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문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즉 감성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현상'이 현상학의 문제영역이다. 그리고 이때의 중요한 탐구대상은 '의미 현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상학은 의미현상의 탐구를 그 기본으로 갖는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의미현상은 객관적 물리현상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의식의 지향적 구조

현상학에서 의식은 지향적 구조를 갖는다. 이 때 '지향적'(Intentio)이라는 말은 무엇에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모든 체험이나 정신적 작용은 '무엇'에 향하여 있다. 지각, 표상, 기억, 희망, 사랑 등은 항상 무엇에 대한 그것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향적 의식이란 '~에 관한 의식'을 뜻한다. 이 구조를 후설은 노에시스(noesis; 의식작용)와 노에마(noema; 의 식된 내용)의 상관구조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지향적 구조의 이해에 있어서 조심할 점은 이 관계를 1:1의 상관관계로 이해하여 일종의 인과관계로 설명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의식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연관으로 이 관계 중 어느 한 항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함이 불가능하다

현상학의 이해를 위한 개론서

- 현상학강의 / 질라시 / 이영호 옮김 / 종로서적
-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 / 안센 / 신귀현 · 배의용 옮김 / 이문출판사
-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리오타르 / 김연숙 · 김관오 옮김 / 까치
-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한국현상학회 편 / 심설당
- 후설에서 사르트르에로 / 피브체 비치 / 이영호 옮김 / 지학사
- 현상학의 이해 / 韓荃淑 / 민음사
- 현상학과 분석철학 / 朴異汶 / 일조각
- 현상학의 이념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 후설 / 이영호 · 이종훈 옮김 / 서광사
- 후설 사상의 발달 / 보에르 / 최경호 옮김 / 경문사
- 현상학과 개별과학 / 한국현상학회 편 / 문학출판사
- 현상학과 예술 / 메를로 폰티 / 오병남 옮김 / 서광사

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이 하나의 흐름이며, 이 흐름 속에서 주관적 의식 작용과 대상영역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다.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지향성의 발견이 현상학적 탐구의 탁월한 점으로 등장한다. 현상적인 탐구는 항상 지향적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지향적 분석에서는 관념론이나 실재론이나는 인식론상의 해묵은 논쟁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인식의 기준을 의식 안에 설정하느냐(관념론) 의식 밖에 실재하는 사물에 두느냐(실재론)는 논의는 이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지향적 분석은 항상 주관과 대상의 파기할 수 없는 연관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또다른 점은 대상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밖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된 의식된 대상, 즉 노에마라는 것이다. 이것을 사태라 부른다. 앞서 지적하였던 '사태자체!'라는 구호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내에 대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식하는 나의 의식의 대상이다. 즉 의식된 것이다. 이 대상쪽에 상관자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이 세계이며, 이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를 탐색함이 철학의 과

제다. 따라서 세계의 존재의미와 존재타당은 주관적 체험 속에 함유되어 있다. 현상학은 이런 뜻에서 세계의 대상적 존재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의 지향적 활동을 분석하는 과제를 갖는다. 물론 이때의 주관은 단순한 감성적 주관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경험적 요소를 제거할 순수주관 또는 선험적 주관이다. 이 선험적 주관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현상학적 방법이 창안된다.

현대철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방법은 실험과학이 물리적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사고태도를 여러가지 가능성에서 실험하는 '사유실험'의 방법이라 하겠다. 그것은 우선 의식의 지향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며, 이 밝힘을 통하여 지향과 지향점의 상관관계와 이 지향점의 변경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가지 의미의 변경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로운 태도변경'이라 부르며, 이 변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중지'(Epoche)를 행한다. 이를 통틀어 환원방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이 현상학적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지면이 없다. 현상학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이 글의 결론을 넓은 의미의 현상학적 입장을 갖는 현대철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맺고자 한다.

그 첫번째 비판은 의식현상과 물리적 자연현상을 동일시하고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치환시키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이 입장은 의식을 자연화시키는 잘못을 범한다. 이것을 物象化(Verdinglichung)의 오류라고도 한다. 후설은 이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심리학주의, 물리적 객관주의 또는 넓은 뜻으로 자연주의를 들고 현대학문이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연과학주의'(Scienticism)가 갖는 실증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에 종사한다. 그리고 이 비판을 통하여 근대 이래의 과학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처방책으로 '선험적 현상학'을 제시한다. 이것이 그의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다. 요컨대, 이 때 제기되는 현상학의 특징은 학적 이론의 기초를 우리의 일상적 '생활세계'의 체험 위에서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선험적 지평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하였던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

상학이나, 사르트르의 실존적 현상학 또는 포피의 지각현상학은 이 후설의 후기작품인 생활세계의 현상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가령 포피가 신체의 지각을 현상학적 탐구의 주제로 제기한 것이나, 사르트르가 의식존재(대존재)로서의 실존을 그의 탐구의 중심에 놓은 것이나, 하이데거가 현존재분석을 그의 기초적 존재론의 중심테마로 삼은 것 등이 이를 말하여 준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현상학은 모든 사변적 전제로부터의 해방이고, 인과적 설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탁월한 방법이었다고 하겠다.

또 다른 면, 현상학이 다른 과학에 응용되는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 가령 현상학적 사회학을 예로 들어보자. 사회학이 현상학을 그의 방법론으로 응용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대충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 첫째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종래의 사회학적 방법이 사회학을 자연과학의 일종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이 반발로부터 사회적 행동의 주체가 갖는 의도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학의 기초를 정립하려는 것이 현상학적 사회학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사회학을 사회에 관한 자연과학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하여 슈츠는 생활세계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학적 탐구의 지평을 열어 놓는다.

둘째번 동기는 사회학을 이데올로기의 후견인의 자리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동기에서 현상학이 동원된다. 현상학은 어떤 이론적 전제에 의거함이 없이 사태 자체를 탐구함을 그의 이념으로 갖는다. 이 이념에 따라 사회학은 사회현상을 그 자체로 탐구하여야 하며, 기존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틀 속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현상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위협하기는 하나, 한마디로 잘라 표현하면 모든 학적 이론구성에 있어 절대적 기준으로 등장하는 객관성에 대한 현대과학의 맹신에 대해 주관성의 영역을 보충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때의 주관은, 의식의 지향적 구조에서 잘 나타났듯이, 선험적 주관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상학적 탐구를 통하여 주관 이배제된 객관성이 아니라 의미가 개재된 주·객관의 세계다. 즉 주관성의 권리회복이다.